

第21回全国民俗芸術競演大会
江原道出演作品

民謡部門

旌善 아리랑

日時：1980. 10. 29～31
場所：濟州市公設運動場

旌善 아리랑의 特徵

아리랑謠는 韓國의 代表的인 民謠이다. 旌善아리랑, 密陽아리랑, 珍島아리랑, 瑞山아리랑, 南原아리랑 등 아리랑謠는 “아리랑”이라는 呼稱에 그 불리어진 地名만 붙이면 하나의 아리랑謠가 될만큼 全國 어디에서나 自由롭게 無數히 불리워진 노래이다.

그리고 그 謠詞의 內容面에 있어서도 우리의 生活 風習 環境 人生 男女關係等 庶民生活 全般에 걸친 情恨을 아무런 制約없이 담아 불렀다는데 共通性이었다. 故로 이 아리랑謠는 全國 坊坊曲曲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情답게 사귀어진 우리의 代表的인 民謠로서 世界에 널리 알려졌다.

그러나 이러한 韓國의 아리랑謠를 通覽해 볼 때

그 傳해지는 謠詞數의 많은 量으로 보나, 그 謠詞의 古形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나, 그 謠詞內容의 豐盛한 面으로 보아 단연 <旌善 아리랑>은 많은 아리랑謠 中에서도 가장 傳統性이 強하고 文學的 香臭가 두드러질 뿐더러, 그 애절한 가락이 <旌善 아리랑>의 特徵이라 하겠다.

謠詞의 型態的分化和 가락의 融通性

旌善謠는 短型和 中型. 辭說型(억음)으로 그 型態가 分化되는데, 短型の 境遇 音數의 構造도 한 行이 最短 11音에서 最長 17音數로, 前後行 合쳐 全篇의 長이가 22音~23音으로 되나 그것이 中型 辭說型에 이르면 그 分化現象은 長型化 되어 매우 길어진다.

그러나 이렇듯 音數의 差가 甚하지만 그 것을 노래 할 때에는 아무런 不便을 느끼지 않고 부를수 있는 것은, 원래 그 가락이 매우 늘어졌다는 點에 있다. 即 音數의 調節을 自由로이 할 수 있는 가락의 融通性은 이를 부를때의 氣分 興趣 境遇에 따라 謠詞를 마음 내키는 대로 바꾸어 부르고 지어서 부를수 있으므로서 旌善謠가 한층

民衆에게 親近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要因이었다.

謠詞는 時代에 따라 階層에 따라 各己 불려 왔으므로 그 內容이 비
슷한 것이 많은데 이는 口傳謠이기 때문에 當然하다 하겠다.

現在 採集된 旌善謠는 5百餘篇에 이른다.

旌善謠 가락의 特質

唱者에 따라 謠詞의 內容과 가락이 若干씩 相異하나 只今까지 錄
音 採集한 가락을 比較 分析한 결과 <旌善 아리랑>의 가락은 大體的
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일 것으로 믿어진다.

○가락의 흐름이 구슬프고 구성지도 매우 느려 졌다.

○声域은 大體的으로 다(c)~다(c)와 마(e)~마(e)로 이루어졌다.

○完全 8度乃至 短7度の 比較的 좁은 音域으로 構成되었다.

○他 民謠에 比하여 中音域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

旌善謠의 保存·傳承問題

여로부터 旌善地方은 外部와의 文物의 文流가 지극히 적었던 山間 奧地라는 特殊性 때문에 〈旌善아리랑〉은 다른 地方의 民謠처럼 中間에 消滅되거나 謠詞나 音曲이 바뀌고 變하는 등 混雜性은 덜한 편이 었으나 時代의 變遷에 따른 特히 電波 미디어의 發達이 갖어온 급격한 影響은 旌善謠 本來의 참 모습을 잃을 段階에 이르렀다.

民謠란 本來 그 原流的 性格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. 그러나 現在까지 採集한 旌善謠를 보면 口傳過程에서 他 民謠와의 混流·變形된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. 特히 年少者들이 부르는 것 중에도 멋을 부려 現代의 感覺으로 가락을 바꾸어 부르고 語辭의 方言을 標準語로 고쳐 부르고 있음은 旌善謠의 참 맛을 半減시키고 있어 破壞되지 않은 原形의 記錄保存이 時急하다.

그래서 現在 進行中에 있는 旌善謠의 文學的 音樂的 民俗學的 傳統性을 保存傳承하기 爲한 原流性 整理作業의 意圖가 바로 여기에 있다.

오늘 第21回 全國 民俗藝術競演大會에 出演한 〈旌善아리랑〉은 只 今까지 採集된 5百餘篇의 旌善謠를 整理하는 가운데 그 謠詞와 가락을 唱者別로 比較分析하여 얻어진 旌善謠 中에서 短型과 辭說型(억음) 몇 篇을 紹介한다.

○愁心篇

高麗가 亡하자 벼슬하던 선비들이 旌善地方에 隱
居하면서 自身の 処地를 恨歎하여 부른 노래

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
억수장마 질라나
萬壽山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.

明沙十里가 아니어든
해당화는 왜 피며
暮春三月이 아니라며는 두견새는 왜 우나

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
定數定望이 없는데
맨드라미 줄봉숭아는 왜 심어 났나

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
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게

○早婚篇

過年한 處女가 어린 總角에게 시집을 왔으나 夫
婦의 情을 모르는 新郎을 원망하여 부른 노래

旌善읍내 물레방아는
사시장철 물쌀을 안고 빙글 뱅글 도는데
우리집 서방님은 날 안고 돌줄을 왜 모르나

노랑조고리 진분홍 치마를
주고싶어 주었나
중신애비 말 한 마디에 주었지

노랑두 대구리 떠 범벅 상투
언제나 길러가지구
내 郎君 삼나

저것을 길렀다가
郎君을 삼느니
술씨를 뿌렸다가 亭子를 짓지

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
후렴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게

○愛情篇

처녀총각이 남의 눈을 피하며 싸리골에서 만나기로 했으나
간밤에 나린 폭우로 아우라지를 건너지 못해 안타까워 부른노래

아우라지 뱃사공아
배좀 건네 주게
싸리골 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.

떨어진 동박은
낙엽에나 쌓이지
잠시 잠간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

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
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게

○역음(辭說型)

임자 당신이 날 마다고
울치고 담치고 열무김치 소금치고
오이김치 초치고 칼로 물 친듯이
뚝 떠나 가더니
平昌 팔십리 다 못가고서 왜 돌아왔나

우리집 서방님은
잘났던지 못났던지
엷어 매고 짙어 매고 장치다리 곰배팔이
노가지 나무 지개 위에다 葉錢석냥 걸머지고
江陵 三陟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
白茯嶺 구비구비 부디 잘 다녀 오세요.

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
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게.

旌善아리랑 民俗團

○演出：李 泰 旭 (65 旌善 鳳陽國民學校長)

○出演者：

姓 名	性 別	年 令	住 所
심 금 선	여	51	정선군 북면 북평리
김 남 기	남	41	북면 고양리
전 제 선	남	36	북면 여량리
김 진 각	남	37	동면 백전리
김 병 하	남	37	정선읍 봉양 8 리
안 금 준	남	32	동면 화암리
여 경 희	여	27	정선읍 봉양 8 리
함 옥 자	여	32	북면 애산리
김 동 환	남	25	북면 고양리
김 길 자	여	21	정선읍 봉양 8 리
외 2 명			(후 보)



愛情篇 謠詞中の「아우라지」